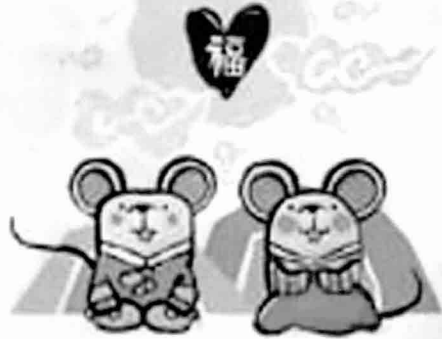


# (사)한국당뇨협회

## 새 / 해 / 인 / 사



당뇨인 여러분!

희망찬 쥐띠해를 맞아 쥐처럼 영리하게 당뇨관리 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종 교육과 캠페인, 당뇨예방을 통해 당뇨인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태 명 총무이사 -

이번해도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항상 당뇨인을 생각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세요! - 강 선 하 / 경리부 -



당뇨협회와 함께한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뇨인 여러분을 만나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참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뇨의 심각성을 정부와 온갖 매체가 다루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당뇨에 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당뇨병환자 분들 중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더 큰 병을 얻는 경우도 많고요.

앞으로 국내 유일의 당뇨 전문지 기자로써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를 누릴 수 있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2008년 쥐띠해에는 건강 사업 더욱 번창하 시고, 많은 당뇨인 여러분들을 만나뵙길 기원합니다. - 홍 지 영 기자 / 편집부 -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월간 당뇨를 사랑해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는데 얼마나 만족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도 저희 월간 당뇨는 독자분들에게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잡지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2008년에도 월간 당뇨 많이 사랑해주세요.

- 신 선 경 기자 / 편집부 -

